

“초대 안디옥교회”

사도행전 13:1-3

누구든지 자녀를 갖게 되면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선호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라는 이름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저희의 의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짓게 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꽤 많은 교회가 교회의 이름을 ‘성광’으로 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광교회라는 이름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교회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안디옥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성광교회’보다 2 배 더 많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안디옥교회란 이름을 선호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안디옥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처음 불려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뿐 아니라, 안디옥교회는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많은 교회들에게 안디옥교회는 좋은 롤 모델이 되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 장에서 7 장까지의 내용은, 성령강림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부흥 뿐만 아니라, 많은 고난과 핍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성장해 갈 때, 고난과 핍박을 통해 더 성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12 장은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도로 바울을 부르십니다. 또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사건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 장 부터는 이방으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장에서 12 장까지는 베드로와 예루살렘교회가 주인공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바울과 안디옥교회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교회를 통해 세계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행 13:2)

성령님께서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지명하여 세우셨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선교사도 선교의 주체가 아니며, 선교단체도 파송교회도 선교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선교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로 세우다’는 말의 뜻은 ‘이미 구별되었다’ 즉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이미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갈 1:1)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따로 선별하여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선교도 선교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2.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2 절에 ‘주를 섬겨’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웠기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인본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신앙이 황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는 교회이기 보다는,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거나 지식적인 것을 강조하는 교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피흘림 없으즉 죄 사함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일점일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의 봉사와 헌신을 강조하는 것을 꺼리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봉사해야 그 교회가 자기 교회가 되고 애착이 생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중요한 황금기에 선교를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시기에 주님께 드리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행 13:2)

금식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금식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밥만 안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눈을 금식하며 귀를 금식하며 혀를 금식하며 몸과 마음을 금식하여 절제하며 거룩한 생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일성수도 영적인 금식인 것입니다. 세상 쾌락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또한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행 13:2)

오늘날은 과학과 이성의 시대입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뒤로 하고, 인간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위원회로 모여서 인간의 지식을 도모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도 지금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인들 안에는 늘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을 자도 하나님 중심으로, 깨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체질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면 성도님들의 삶에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내가 매일 새벽 두 시간을 기도

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형통의 원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Half-Year 특별새벽예배에 모두 함께 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행 13:3)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많은 사명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선교사명’입니다. 선교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이며, 그 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응당 감당해야 하는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상급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1.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20)

2.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단 12:3)

3. 상급이 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 16:27)

4. 물질의 복이 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후 9:6)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일함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매번 선교 현장에 발벗고 함께 동참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금식하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것 역시 선교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에 함께 동참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그런 우리 성광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많은 교회가 이름을 ‘안디옥교회’라고 할 정도로 안디옥교회는 교회들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 안디옥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선교 사역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나눠 봅시다.
2. 안디옥교회는 ‘주를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를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시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함께 나눠 봅시다.
3. 안디옥교회는 ‘금식하는 교회’였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금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함께 나눠 봅시다.
4. 오늘은 ‘안디옥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 스스로 안디옥교회와 같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 또 그것을 위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결단해 보고 그 결단을 나누어 봅시다.